

# 기상1호, 다시는 겪지 못할 값진 경험



**김다인**  
국립기상과학원

‘바다 위의 떠다니는 기상청’이라 불리는 기상관측선 ‘기상1호’에 온지 벌써 1년 반이 되었다. 그동안 평생 가보지 못할 바다와 섬들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풍부한 기상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이처럼 값진 경험을 얻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돌이켜보면 멀게만 느껴지는 2015년 초, 나는 발령 통지를 받고 기상1호에 첫발을 내디뎠다.

## 기상1호와 뱃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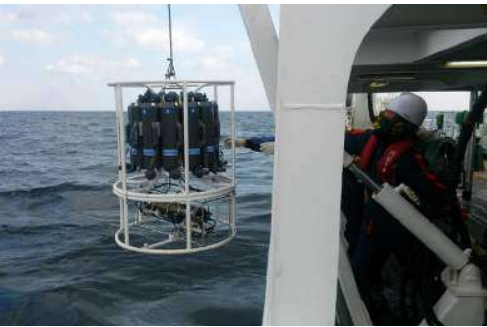
“어린 시절 이후 배를 타본 적이 없어!” 라는 말은 내게 해당하는 말이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 줄곧 내륙 지방에서 살아왔고, 어릴 때 남도의 보길도라는 섬으로 가족여행 갔을 때를 마지막으로 배를 타본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수영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이러한 두려움과 함께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뱃멀미였다. 처음 부산에 정박해 있는 배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치 작은 지진이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배가 줄로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당시 느꼈던 흔들림은 ‘어린이 수준’에 불과했다. 출항 날짜가 잡히고 바다로 떠나는 순간 비로소 해상에서의 ‘진정한 흔들림’을 체험하게 되었다.

## 위험기상을 만나다

좀 더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면, 운항 중 위험기상을 만날 때 배가 기울어져 각종 물건들이 쓰러지는 상황이 종종 있었다. 이제는 적응하여 아무렇지도 않지만, 처음에는 놀라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당시 넘어진 책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내게 선박직원 한 분이, “어차피 세워놔도 또다시 넘어질 텐데 세우지 말고 그냥 넘어트려 놔요.”라는 말을 하셨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웃음으로 넘겼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무서운 말이었다. 한편으로, ‘당분간 배가 이렇게 기울어질 것’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활을 겪다 보니 이처럼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선박직원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게는 수십 년을 근무하셨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때로는 일이 잦고 고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유 있고 노련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감탄하곤 한다.

## 기상1호로 자부심을 느끼다

나는 기상1호에 근무하면서 1일 2회 고층비앙의 기본 관측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



다. 주로 해상에서의 태풍, 장마, 집중호우 등의 관측 조사 업무로써, 여름철 강수량 관측, 태풍 대비 표류부이 관측, 해양 수온 및 염분 관측, 평창올림픽 대비 동해상 동풍류 관측, 봄철 서해상 에어로졸 관측 등 다양한 일들을 해왔다. 나열해 보니 양이 상당한데 사실 이 모든 일을 기상1호 단독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업무는 타부서 및 타기관의 업무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비록 이처럼 기상1호에서 많은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해양 연구 조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해상 관측자료 수집'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었다.

### 인상깊었던 기상1호

기상1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작년 여름 운항 중 뇌전현상을 보았을 때다. 당시 대기불안정으로 군데군데 뇌운이 생겼는데 마침 기상1호 바로 위 상공에서 뇌운이 크게 발달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 뇌운의 명확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기상관측 사각지대인 해상에서 이러한 중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어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 한편, 당시 발생한 낙뢰를 카메라에 담았었는데 카메라 성능 및 관측자의 재량 부족으로 좀 더 멋지게 촬영할 수 없었던 점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참으로 많은 추억이 함께한 기상1호에서의 생활이었다. 육상에서 겪지 못할 경험들을 통해 어렵고 힘든 경험은 자신감으로, 새롭고 유익한 경험은 노하우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이를 자양분으로 앞으로 더욱 멋진 기상인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해 본다. ☺